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5>

日요코하마 도시재생 핵심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유산일 뿐인 붉은 벽돌과 낮은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최신식 건물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일본 요코하마다. 1971년 도시디자인 정책을 펴면서 근대건축물 보존에 나서고 창조도시정책을 통해 보존된 공간을 문화예술 작품과 예술인으로 채운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깃든 이 건축물은 도시의 관광자원이 돼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그에 따라 교통·상업시설들이 발전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1929년 지어졌던 옛 국립제일은행 건물로 앞 부분은 그대로 둔 채 뒷 부분은 재개발해 최신 건물을 건립했다. 요코하마시창조도시센터 터로,뱅크아트1929의 거점이다.

■ 요코하마 문화예술재단

시민들 문화 향유 최우선 문예정책·시설관리 총괄

요코하마시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시설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예술문화진흥재단은 지난 1976년 창설된 재단법인 오사라기시로(大佛次郎)기념회와 각각 1987년과 1991년 설립된 재단법인 요코하마시미술진흥재단, 요코하마시문화진흥재단이 통합해 지난 2009년 7월1일 창립했다.

요코하마시가 2억엔의 자본금을 전액출자했으며, 자산규모는 20억2951만엔 정도다. 1년 예산은 대략 40억엔으로, 이 중 60%는 시가 소유한 문화시설의 위탁운영보조금, 나머지 40%는 그 외 프로그램 보조금 및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평의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사무국은 경영기획실, 업무관리팀, 홍보마케팅팀, 협동추진팀 등을 두고 있다. 1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재단은 요코하마미술관, 요코하마시나토미라이홀, 요코하마시민갤러리, 요코하마창조도시센터 등 12개의 크고 작은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내용은 ▲예술창조 및 발전 ▲신진예술가 발굴 ▲예술문화의 시민 접근 확대 ▲시민문화활동 지원 ▲시민협동 추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창조 및 발전 부문에는 요코하마의 역사와 문화, 장소성 등의 이점을 살린 무대예술 진흥, 지난해 호평을 받은 파이프오르간 연주 및 무성영화 상영, 일본과 중국의 전통음악 향연, 일본·핀란드 간 공동예술작품제작 등이 있으며,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해 작품제작과 발표 지원 및 공모·공연·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도록 품페이션, 도가전 등 국내외 전시를 유치하고 예술문화교육프로그램, 공개강좌 및 강연, 초등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아틀리에, 어린이 뮤지 프로그램, 어린이미술전 등 시민문화활동 지원 전략도 추진중이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예술문화활동 거점의 개척 및 운영, 예술문화지원의 수직·보존 및 활용, 예술문화진흥과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제언,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 등이 재단의 몫이다. 모두 950개 사업을 펼쳐 250만 명 이상이 시설에 입장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다는 것이 재단의 목표다.

재단 사무국장 호리에 다케시(堀江武史·57)씨는 "재단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사업은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창조도시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살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창작터로 되살아난 근대건축물 도시를 살리다

요코하마=글·사진 윤현석 기자

그러나 이들 예술문화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이 자립운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요코하마시가 2004년대 창조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박제처럼 도심 한 자리를 차지하던 근대건축물들을 사들이고 예술인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과 지원을 통해 조직과 시설을 설치했다. 모두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한 것이며, 현재 이들 시설의 재정자립 정도는 20~30% 선에 머물고 있다. 문화예술의 목적을 수익에 두기보다 그 후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창조도시로 나가는 데 왜 문화예술이 핵심인가. 이 질문에 요코하마시 창조도시정책본부의 나가라 마사하루(中原正治·61)씨는 "문화예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극심한 도시경쟁시대에 도시의 독창적인 문화야말로 가장 훌륭한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창조도시의 모범모델이라고 불리는 요코하마역시 창조도시정책을 실시한 것은 고작 7년 전이다. 아직 완벽한 시스템을 정착시키지는 못했으며, 엄밀히 보면 현 단계는 어느 정도 실패를 맛보고 약간의 믿음과 성공에감을 가진 채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코하마시가 창조도시를 내걸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재,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재능 있는 인재가 모이는 도시는 정보가 모이고 그에 따라 가치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머물 곳과 창조적인 사고를 펼칠 곳이 필요했으며, 요코하마는 이를 위해 '뱅크아트(BankART)1929'과 '자임(ZAIM)'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뱅크아트 1929는 은행과 예술이라는 단어에 예술인들이 입

주한 건축물의 설립연도를 섞은 합성어이며, 자임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장인(座)에서 ZA를, 젊은 예술인과 비영리법인(NPO) 등을 중간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중재자(Intermidiary)에서 IM을 떼어와 붙인 것이다.

뱅크아트1929는 2004년 2월 요코하마 구도심에 위치한 옛 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옛 후지은행 요코하마 지점의 위탁운영단체를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2년간 시범운영할 단체를 모집하는데 모두 24개 단체가 응모에 참여,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운영주체로 정해지자 맨스, 연극, 건축, 미술 등 각각 다른 장르의 단체와 집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뱅크아트1929로 했다. 그 후 이 연합단체는

트1929는 요코하마 항만의 일본유권선해안창고고를 빌려 뱅크아트 스튜디오 NYK로 건물 명칭을 바꿔 이전했다.

이후 뱅크아트1929는 도심 내 유희주점과 야쿠자 사무실로 가득한 코가네초(黄金町)에 대한 경찰단속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자 이를 주민 바자회나 작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맡거나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위해 교류행사를 주최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도심 내 학교에서 일본 유명 예술가들을 초청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사도 갖고 끝없는 건축가들이 구도심 내 빈 건물에 머물 수 있도록 추진했다.

ZAIM은 1927년 일본면화 요코하마지점으로 설

근대 유산 사들여 문화예술인과 작품으로 채워 100여개 사무실에 예술가 1000여명 이상 활동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내놓은 제안들을 심의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심사한 뒤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와 엮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사업은 크게 주택사업, 조정사업, 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무대예술, 미술전 등 자체 이벤트나 사업이 주체 사업, 다른 단체의 이벤트 협조 및 장소대여 등이 조정사업, 카페·주점 운영 및 서적 판매, 뱅크아트 스킵 운영 등이 수익사업이다. 2년 동안 이벤트 수 600건, 입장자 수 17만명, 시찰단체 182곳, 카페 및 주점 이용 5만4000명 등의 실적을 남겨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006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옛 후지은행 요코하마지점 건물은 2005년 도쿄 예술대학대학원영상연구과가 사용하게 돼 뱅크아

리핀 건물을 국가가 사들여 관공재무국과 노동기준국 등 관공서로 사용하다가 2002년 요코하마시가 사들여 문화공간으로 꾸미며 출발했다. 이 건물에 33팀의 아티스트가 입주해 매년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입주 아티스트의 아틀리에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0개의 공연, 전시회 등 사업을 개최했고 그로 인해 7만3000명이 입장했으며 요코하마시로부터의 보조금 2500만엔과 자체수입 500만엔 등 연간 3000만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요코하마시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년 간 100개 사무실에 1000명의 예술인이 모여들었으며, 시는 5년 간 70개 사무소에 각각 연간 600~80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매년 2차례 시민들에



1929년 들어선 옛 후지은행 요코하마지점 건물로 지난 2004년 시의 창조도시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뱅크아트1929이 사용했다가 2005년 도쿄예술대학대학원영상연구과가 이전해 쓰고 있다.

게 공개돼 소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요코하마시의 분석이다.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구도심의 근대건축물 또는 빈 사무실을 이용하고, 행정기관과 문화예술인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단체나 기관을 두며, 시민 또는 외지인과의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요코하마시예술문화진흥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요코하마미술관 전경.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심)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방,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p>상무점</p> <p>1관 블랙스완 (18세)</p> <p>2관 혈투 (15세)/만추 (15세)</p> <p>3관 조선명탐정 (12세)</p> <p>4관 아이엠넌버포 (12세)</p> <p>5관 메카닉 (18세)/연노운 (15세)</p> <p>6관 일파연오매가 (전체)/퀵트롤러 (15세)</p> <p>7관 퀵트롤러 (15세)</p> <p>8관 리멤버미 (전체)</p> <p>9관 랭고 (전체)</p> <p>10관 아이들 (15세)</p>	<p>하남점</p> <p>1관 일파연오매가3D (전체)/아이엠넌버포 (12세)</p> <p>2관 조선명탐정 (12세)</p> <p>3관 퀵트롤러 (15세)</p> <p>4관 라퐁젤3D (전체)/만추 (15세)</p> <p>5관 블랙스완 (18세)</p> <p>6관 아이들 (15세)</p> <p>7관 메카닉 (18세)/혈투 (15세)</p> <p>8관 리멤버미 (15세)</p> <p>9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p> <p>10관 랭고 (전체)/아이들 (15세)</p>
--	--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퀵트롤러 (12세) 최고급관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아이엠넌버포 (12세)

4관 일파연오매가 (전체)/연노운 (15세)

5관 아이들 (15세)

6관 만추 (15세)/조선명탐정 (12세)

7관 리멤버미 (15세)

8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랭고 (전체)

9관 메카닉 (18세)/퀵트롤러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아이들 (15세)

2관 아이엠 넌버 포 (12세)

3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4관 랭고 (전체)/메카닉 (18세)

5관 리멤버미 (15세)

6관 연노운 (15세)/조선명탐정 (12세)

7관 블랙스완 (18세)

8관 퀵트롤러 (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